

정책과 현장을 잇는 한국섬포럼 ‘섬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다’

한국섬진흥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22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섬 정책과 현장을 잇는 교두보가 될 학술포럼에 집중하며, 섬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간을 이끌어왔습니다. 1년 동안 국내·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나온 안건과, 사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1회 한국섬포럼



제1회 한국섬포럼 2022. 5. 25. / 한국프레스센터 :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전략

섬어촌 지역소멸 위기와 선제적 대응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섬은 국토의 끝이 아닌 우리 영토의 시작점이며, 생활 정주 기반, 어업 활동의 전진기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국민해양레저 지원,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은 도시 및 농촌, 어촌과 비교하여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아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섬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회경제변화를 추적하고 섬 지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준 마련과 이행이 필요합니다. 어촌형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ICTs 기술 적용을 통한 섬 지역 현안 해결 및 국토 외곽지역의 소득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섬 지역 인구소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산어촌 지역균형발전 실천 사례와 섬 지역 발전의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현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집중 심화에 따른 국민 삶의 질 저하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도·농간 정주 환경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농산어촌의 장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지향점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지향점은 시군 농산어촌 단위로 변경되어야 하고, 국민 행복 추구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고와 섬 교류 인구 관계 확대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고 싶은 섬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섬종합발전계획 개선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한국섬진흥원
김남희 정책연구실장

산업화 이후 전 국가적인 도시화·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섬은 육지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섬 지역의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8년부터 시작된 '섬종합발전계획(구.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면에서 성과를 검토하거나 관리하는 틀·도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의 한계점을 지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섬에 대한 정의를 섬 현실을 반영하여 재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섬종합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계획 시행 주체의 일원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수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섬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